



“F1자동차대회 보고 싶어요” 동신대 문화관광인력양성사업단이 주최한 ‘제4회 문화관광박람회’가 4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들이 F1 자동차 경주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부스에 전시된 자동차를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행사는 6일까지 열린다. /위적라기자 jrwi@kwangju.co.kr

“호남고속철 완공 앞당기겠다”

이 대통령, 시·도지사 회의서 밝혀

“J프로젝트도 서두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및 J프로젝트 사업과 관련,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대형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4일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박근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

도지사가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J프로젝트 조속 추진을 건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 할 것이 이번 조치로 인해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아무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 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16개 광역시·

도지사들은 8일 발표될 지방발전종합대책에 내실있는 내용을 담아달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각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니 (강 정비사업)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말했다.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태호 경남지사도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 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시·군 무분별 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수백억 낭비·사장

감사원 실태 발표

전남도와 일부 시·군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동의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보조금을 낭비하거나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 2004년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투자심사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주체에 보조금을 신청, 국비 22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 목포시는 그러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지난 2005년 6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으며, 지난 6월 말까지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 3년7개월

간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또 곡성군은 지난 2006~2007년 ‘소수력발전소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나 하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식경제부로부터 45억 원의 국비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자체도 취소될 위기에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을 마무리한 뒤 남은 보조금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거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전남도는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1~2002년 ‘국제 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금 집행액 99억5천여만 원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 여수시는 ‘국제 규제 어업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40억5천여만 원을 국고에 반환하지 않고 시 예산에 편입, 시 자체 현안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군은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로부터 7억5천여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 ‘실버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2005년 민간업자가 농림부로부터 18억9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제멋대로 36억5천여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30억여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금 4억 수수 혐의’ 노건평씨 구속

검찰, 세종증권 수사… 노씨 “국민에 죄송”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4일 구속했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자료와 심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노씨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의 성격과 중대성,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2006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인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증권이 농협에 매각되도록 정대군 당시 농협회장에 청탁하고, 인수가 성사되자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흥기욱(구속) 사장으로 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2005년 2월 자택 인근에서 정화삼씨의 동생 광용씨로부터 흥 사장을 소개받아 로비 청탁을 승낙하고, 같은해 5~6월 정화삼씨한테 또 다시 청탁을 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 정 농협회장에게 전화하고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 직접 세종증권 인수를 부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30억 원 중 세액 과징을 거친 현금 1억원이 2005년 3월 착수금으로, 현금 2억원과 1억원이 두 차례에 걸쳐 2006년 4월에 심부름꾼을 통해 노씨에게 넘겨졌다고 밝히고 견네진 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 형제는 경남 김해 오락실 운영에 10억5천만 원, 부산 오락실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3억~4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으며 나머지 수익원을 제3자 명의 펀드에 가입하는 등 모두 써 차명계좌에 남은 돈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성인오락실 수익금이 노씨에게 건너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이날 구치소로 가면서 “아직 인정하지 못한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인정된 것도 있고 전부 인정하긴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처음부터 공모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M타워 5층
062-271-1111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062-271-1111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2008. 12. 30 ~ 2009. 1. 7 (6주 3회)
1. 교육 내용: (1) 영어, (2) 수학, (3) 과학, (4) 사회, (5) 인성교육
2. 교육 방법: (1) 이론교육, (2) 실용교육, (3) 체험교육, (4) 동아리활동, (5) 문화체험
3. 교육장소: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
4. 교육비: (1) 교육비, (2) 교재비, (3) 교복비, (4) 교구비, (5) 교차로비, (6) 교차로비, (7) 교차로비, (8) 교차로비, (9) 교차로비, (10) 교차로비
5. 교육대상: (1) 중·고생, (2) 중·고생, (3) 중·고생, (4) 중·고생, (5) 중·고생, (6) 중·고생, (7) 중·고생, (8) 중·고생, (9) 중·고생, (10) 중·고생
6. 교육문의: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
7. 교육문의: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
8. 교육문의: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
9. 교육문의: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
10. 교육문의: (1) 호남한샘학원 (2) 호남한샘학원 (3) 호남한샘학원